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평가 '최우수'

정부 추가 인센티브...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탄력

전북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한 '20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11억2000만원의 사업비 외에 추가로 1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단이 추진하는 유학생 유치 노력과 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 온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글로벌 인재 양성 유형과 일반사업 유형으로 나뉘어 전국 10개 권역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5개년 사업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선도대학인 전북대를 주축으로 군산대, 우석대, 원광

대, 전주대가 협력대학으로써 참여해 탄소와 농생명, 문화산업을 연계한 '농생명 한문화(K-Culture) 융복합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5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 컨소시엄은 자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농생명 과학기술을 전파하고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베트남 LED 연구센터개소,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북방지역 국제교류 강화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현지에서 교육하고 학부 및 대학원 등으로 유치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은 "이번 최우수 평가 결과가 컨소시엄 대학 및 도 기관, 그리고 산업체가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며 "향후 지자체 및 지역 기업과 연계를 통한 교육의 내용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산학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그간 구축한 해외 거점 네트워크를 더욱더 확대·발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중국 의류 유통 전문기업인 가로스(GAROSU)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종합성적3위·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전북체육회, 시군 대표 관광지 등 전북홍보 앞장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5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전국체전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주 개최지인 익산시를 비롯해 도내 전 시·군에서 1개 종목 이상씩 총 47개 종목 경기가 펼쳐진다.

시·군별 경기장 현황을 보면 익산에서는 육상과 펜싱·축구·배구 등 총 12개 종목이 열리고 전주에서는

수영과 자전거·체조 등 10개 종목이 진행된다.

군산에서는 탁구와 수상스키 등 9개 종목이 열리고 완주에서는 테니스와 근대5종 등 5개 종목이 펼쳐진다.

김제와 남원에서는 각각 4개 종목의 경기가 열리고 부안과 정읍·고창·임실·진안에서는 2개 종목씩 열린다. 이밖에도 무주와 장수·순창에서도 각각 1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이처럼 각 경기종목이 시군별로 분산·개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 가운데 전북체육회도 '전북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이는 체전 개최로 발생하는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비롯해 전북을 찾는 선수와 가족 등의 소비 지출을 통해 더 많은 경제효과를 얻기위함이다. 이에 각 시·군의 대표 관광지 등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대한체육회와 전국 시도체육회, 각 경기종목 지도자와 임원 등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또 전라예술제와 예술문화대제전, 고창모양성제, 진안홍삼축제 등 전국 체전 전·후로 열리는 각종 축제와 행사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앞서 전국체전준비단과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숙박·음식업소 위생지도와 범도민 클린운동, 14개 시·군 대표관광지 홍보관 운영, 우수 농특산물 전시장 운영 등도 논의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체전 종합성적 3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파급 효과를 높이기위해 전국체전준비단과 도내 14개 시군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전북을 찾게 될 선수와 임원은 3만 여명으로 예상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中 의류 유통 전문기업과 '맞손'

중국 현지 기업에 학생 인턴십·현장실습 지원

전북대학교가 중국 의류 유통 전문기업인 가로스(GAROSU)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 김재민 총장 직무대리는 4일 학생 모험 특강 차 대학을 방문한 가로스 이승진 대표를 접견, 공식 협약식을 갖고 긴밀한 앞으로 긴밀한 교류를 약속했다.

이 기업은 한국 의류를 현지로 직접 공급하는 S2B(Supply Chain platform To Business) 시스템 운영이 특징으로 최근 중국 전역 100여 곳에 대리점을 낼 정도로 급성장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산학협력과 전문지식교육을 통해 우수한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우수학생을 선발해 이 기업에서 인턴십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현장중심 실무교육과 정보 교류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올 2학기 글로벌 모험 인재양성을 위한 오프캠퍼스(Off-Campus)프로그램으로 2명의 학생을 기 기업에 파견해 8주간 인턴십을 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우리 대학 학생 누구나 중국으로 진출하여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글로벌 감각까지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뷰티, 패션 인플루언서, 온라인 마케팅 등에 필요한 청년 수요가 넘쳐나는 현지 실정에서 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유은혜 "초등 1·2학년도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 놀이 중심 허용"

"국회 법 개정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에 이어 초등 1·2학년도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5일 오전 9시 세종시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에도 영어수업을 허용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도 놀이와 체험 중심의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과도한 영어에 대한 교육이나 지식 전달 위주의 영어교육은 그 단계에 맞지 않다는 평 때문에 금지



유은혜 부총리가 지난 5일 세종시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에 방문했다.

조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에도 여야 의원님들이 법 개정을 통해 대

안을 모색해보자고 대안을 주셨다"면서 "국회에서 많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도교육청, EBS 공동주관 입시설명회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전주대학교 J아트홀에서 EBS와 공동주관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설명회를 가졌다

이런 입시설명회에서는 예비 고1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재 EBS 전속교사(문산제일고)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이해 및 성공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김중익 EBS 대표 강사(광주 인성고)가 '2022학년도 선택과목의 이해 및 과목별 예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 8월 확정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정확한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중학생이 알기 쉽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아울러 선택과목에 대한 이해와 학습 전략을 소개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과 학교 내신관리를 위한 전략에 대해 강의의 진행했다.

이번 입시설명회에 참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2022학년도 대입 성공전략' 자료집을 제공했다.

/장은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